

질병관리청장, 신종·고위험 감염병 의료대응의 최전선을 찾다

- 질병관리청장,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발표(6.10.) 이후,
첫 신종·고위험 감염병 현장행보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방문
- 국외 감염병 유행(에볼라바이러스병 등)에 따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1급
감염병 의사환자 대응사례 공유 및 현장의견 청취를 통해 대응체계 점검

【관련 국정과제】 84-5.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7월 14일(화), 지난해('25년) 가장 많은 1급 감염병 의사환자*를 진료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아, 신종·고위험 감염병에 대한 의료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유행지역 방문, 위험노출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감염가능성이 있어 검사를 수행한 사례

**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22년 지정, '33년 완공 예정)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10일 발표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국외 신종·고위험 감염병 유행상황(에볼라바이러스병,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등)에 대한 대비·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이자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22년 지정)으로서, 지난해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1급 감염병 의사환자 진료 12건을 대응하며, 국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 1급·신종 감염병 발생 시 즉시 활용가능한 병상 (전국 38개 의료기관, 270병상)

이번 현장방문은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소개 및 토의(질병관리청), ▲1급·신종 감염병 대응사례 발표 및 현장의견 청취(분당서울대학교병원), ▲주요 감염병 대응시설(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뮬레이션센터 등) 방문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의 유형화(제한적 전파형 vs. 팬데믹형), ▲의료 대응 자원의 계층화(1-4층위, 중앙-권역-지역-동네), ▲지역완결형 감염병 의료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간략히 소개하고, 위기유형별·대응단계별 감염병전문병원의 기능·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 계획에 따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 감염병전문병원(1층위)은 감염병 의료대응의 최상위 기관으로서, 신종·고위험 감염병 초기환자, 중증 및 특수환자 대응 등 환자의 진료뿐만 아니라, ▲권역 내 감염병관리기관과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네트워크 운영,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참고) 감염병관리기관 기능·역할 》

구분		감염병관리기관	제한적 전파형, 팬데믹 초기	→ 팬데믹 중·후기
1층위	중앙·권역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 FFC(First Few Cases) 등 초기환자 대응 ○ 2~3층위 의료기관에게 치료역량 전파(교육·훈련)	○ 중증·특수환자 대응 ○ 2~3층위 의료기관에게 치료역량 전파(교육·훈련)
2층위	지역	지역 감염병치료병원	○ 초기환자 대응	○ 중증·특수환자 대응
3층위		지역 감염병센터 (지역책임의료기관 등)	-	○ 지역 내 경증환자 대응 ○ 지역 내 의뢰·회송 지원 및 치료역량 전파
4층위		동네 감염병치료병원 (일반의료기관)	-	○ 지역 내 경증환자 대응

이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실제 대응경험을 토대로 사례 중심의 대응 체계 논의 및 시설을 점검한다.

특히 1급 감염병 의사환자 발생 시 팀별 역할과 환자 발생 상황별 동선 분리, 평시 교육·훈련의 중요성과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실제 1급 감염병 의사환자를 대응한 의료진으로부터 현장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또한 실제 환자를 수용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상시 교육·훈련을 수행 중인 시뮬레이션 센터 등 감염병 의료대응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점검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국제교류가 활발한 동시에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국외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언제든 우리나라에도 1급 감염병이 유입·발생할 수 있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대기하고, 두꺼운 보호복을 입고 의사환자에 대응하는 의료진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감염병전문병원이 감염병 의료대응의 최상위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현장방문 계획(안)

<별첨>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담당 부서	감염병위기관리국 의료대응지원과	책임자	과 장	황경원 (043-719-7810)
		담당자	서기관	김우정 (043-719-7820)
			주무관	신진희 (043-719-7812)



□ 추진배경

-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발표(6.10.(수)) 후 감염병 의료 대응의 현황 파악을 위해 기관장 현장방문 추진

□ 방문 개요(안)

- (일시) '26.7.14. (화) 15:40~16:40
- (장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기관 개요 (간략)

- (사업참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14병상 보유,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선정('22년)
- (대응경험) '25년 기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배정된 제1급감염병 의사환자 67건 중 12건(18%)을 대응하여 가장 많은 1급 감염병 (의사)환자 진료

- (참석) 질병청청장, 감염병위기관리국장, 의료대응지원과장, 위기관리 총괄과장 등, 병원원장, 기조실장, 감염관리센터장, 감염관리팀장 등

- (논의내용) ①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질병청) 논의,
②1급·신종감염병 대응사례 공유(병원) 등 현장의견 청취

*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내 의료대응 고도화 전략

< 세부일정(안) >

일정	주요내용	비고
15:35~15:40 ('05)	○ 이동(중회의실→ 대회의실)	
15:40~16:05 ('25)	○ 인사말씀	기관장
	○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질병청 의료대응지원과장
	○ 1급·신종감염병 대응사례 공유	병원 감염관리센터장
	○ 기타 현장의견 청취	-
16:05~16:35 ('30)	○ 시설 방문 및 점검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뮬레이션센터	
16:40	○ 마무리	